



지휘자 금난새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 30일~9월 2일 국가정원·우천시 순천문화예회관

조수미·이무지치·금난새 등 출연...전체 무료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9월 4일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한국 첫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임지영 바이올린 협연

임지영(왼쪽)과 조수미.

소프라노 조수미, 실내악단 이무지치,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클래식 거장들이 잇따라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다.

정원과 클래식의 만남 '2018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가 오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30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개막공연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출연한다. '판타지가 가든'이란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개막공연에서 조수미는 최영선 지휘자가 이끄는 KNN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뮤지컬 배우 윤영석과 함께 무대에 올라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인다.

둘째 날인 31일에는 이탈리아 최정상 실내악단인 이무지치가 공연을 펼친다. 12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이무지치는 비발디의 '사계'를 가장 잘 연주하는 실내악단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앙상블로 이번 무대에서도 비발디의 '사계' 전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무지치와의 협연자로 나서는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최현욱)의 무대도 눈여겨 볼만 하다.

9월 1일에는 마에스트로 금난새 지휘자가 뉴월드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협연자는 피아니스트 유영욱, 색소포니스트 황동연, 소프라노 윤정빈, 테너 성승욱 등이며 지역 음악가들이 함께 한다.

교향악축제 마지막 날인 9월 2일에는 더 솔로이스츠필하모니 오케스트라(지휘 박성완)의 연주로 국내의 클래식 거장들이 순천의 평화를 노래한다. '순천 피스 가든'이라는 테마



이탈리아 최정상 실내악단 '이무지치'.

로 진행되는 폐막공연에는 첼리스트 송영훈, 파페라 그룹 컨템포 디보, 트럼펫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순천지역 음악인들이 협연자로 무대에 선다.

우천 시에는 순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으로 공연장소가 변경된다. 문화예술회관 입장은 좌석 사전예약 절차를 통해 티켓을 받은 관람객들이 우선 입장한다. 문의 061-749-4791.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은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갖는다.

오는 9월 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시향 정기연주회에서 임씨는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작품.19'를 들려준다.

현재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 재학중인 임지영은 뮌헨 캄메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브뤼셀 필하모니, 룩셈부르크 필하모니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게 있는 솔리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김종재 삼일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날 공연은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서곡으로 문을 열며 피날레 곡은 브람스의 마지막 작품 '교향곡 4번 e단조'가 장식한다. 당대의 저명한 음악평론가 한슬릭이 '삶에 대한 고독과 체념을 담아낸 어두움의 근원같은 교향곡'이라 평했던 작품이다. 티켓 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학생50% 할인). 문의 062-524-5086.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오는 10월 15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무대에 선다.

베토벤의 소나타로 레퍼토리를 꾸민 이번 공연에서는 '소나타 8번 비창', '소나타 26번 고별', '소나타 29번 함머클라이버'를 만날 수 있다.

프랑스 에피탈 콩쿠르에서 우승한 김다솔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독일 ARD콩쿠르, 슈만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으며 2013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를 역임했다. 티켓 가격 4만원(학생 2만원 할인). 문의 062-360-84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녀는 폭력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았나

광주여성재단 31일부터 'After After THAT...' 전

폭력과 차별로부터 살아남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엮은 미술전이 열린다. 광주여성재단은 오는 3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재단 8층 여성전시관에서 'After After THAT : 이후의 이후'전을 연다.

이 전시에서는 광주여성재단이 진행한 '1회 허스토리(Herstory)' 기획전시 공모전에 선정된 3개 팀 가운데 레레, 민경, 헤라 작가가 속한 팀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으로 살아오며 겪은 크고 작은 폭력을 조명하고, 폭력을 당한 뒤 그녀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담아낸다. '살아남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라는 부제처럼 폭력을 겪은 이후의 삶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참여작가들은 '여성'이란 이름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동성애와 관련해 겪어 된 상처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레레의 도자기와 조각, 헤라의 출판 디자인물, 민경의 영상작품과 회화,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를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를 통해 작가들은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시선을 고발하고 피해자와 소수자들의 생체기에 주목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건네고자 한다.

실제로 레레는 가슴과 심장이 뺨 뚫려 공허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인체 조각을 통해 여성이기에 겪었던 추행 등의 폭력이 준 상처를 드러낼 예정이다. 자신이 겪은 일들이 추행임을 인식한 이후부터 흐트러진 일상의 파편을 조각으로 승화시켰다. 숨을 끊고 구워진 흙을 다시 식히며 엉겨 붙게 하는 과정을 통해 레레는 폭력이 주는 심리적 외상의 치유와 수습을 반복한다.



레레 작 '나 불렀어?'

또 헤라는 자신을 순종적인 여성으로 길러내려 온 엄마를 거부했던 경험을 깨낸 뒤 소수자의 삶까지 노래한다.

민경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체성 이야기를 화두로 던진다. 가로 7m 가량의 캔버스 9개와 마스크테이프로 완성한 작품 '아버지가 딸에게 용돈처럼 준 것들과 그것으로 딸이 사먹은 것들', 영상 '계란으로 바위치기' 등을 선보이며 여성폭력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설적으로 내뱉는다.

전시가 시작되는 31일 오후 2시 재단 여성전시관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문의 062-670-053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김도일 조선대 초빙교수 임명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김도일(56) 조선대 초빙객원교수를 임명했다. 김도일씨는 2021년 8월 27일까지 3년이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 조선훈을 거쳐 조대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도일 대표는 광주의 마당극 극단 신명 단원을 거쳐 신명 대표,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무처장, 문화평론가로도 활동했다. 김도일대표는 이날 도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문체부는 "현장 경험과 한국드라마학회 이사 등 학술 활동을 바탕으로 예술 분야의 유통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5월 센터 대표로 윤미경 전 국립극단 사무국장을 임명했으나,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임명을 철회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한국문학 미래가 될 젊은 작가

최은영 소설가·안희연 시인 선정



최은영 소설가 안희연 시인 '쇼코의 미소'의 작가 최은영과 제34회 신동엽문학상 수상자인 안희연 시인이 예스24 온라인 투표에서 독자들이 뽑은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로 선정됐다.

23만6000명의 독자들이 참여한 투표에서 최은영 작가는 6만1447표(7.6%)를 얻으며 소설가 부문 1위에 올랐다. 2위는 5만7696표(7.1%)를 받은 김금희 작가가 차지했으며 박민정 작가는 4만7625표(5.9%)로 3위를 차지했다.

시인 부문에서는 안희연 시인이 총 5만3537표(6.8%)를 획득하며 1위에 올랐다. 2위에는 유계영 시인이 5만2598표(6.7%)로 독자의 선택을 받았고, 문보영 시인이 5만2186표(6.6%)로 3위에 올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훔플러스 건너편

광주 **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